

광주시, 어등산 테마파크 조성 1년 넘게 방치

골프장만 우선 개장
민자유치 지지부진
지방선거 이후 늦춰질 듯



광주시가 오는 2015년까지 테마파크 등 '시민의 휴식처'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광산구 운수동내 어등산 유원지 부지가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광주시가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어등산 골프장 선(先)개장'을 승인하는 대신, '시민의 휴식처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어등산 유원지(테마파크·호텔) 조성사업이 1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이다. 사업참여를 검토한 일부 민간 업체들이 '돈 되는 사업'인 골프장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테마파크로는 수익을 낼 수 없다"며 포기했기 때문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광산구 운수동 일원(어등산) 273만㎡부지에 2015년까지 3400억원의 민간투자를 받아 테마파크와 특급·가족호텔 등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골프장 27홀(체육시설)도 포함됐다.

시는 당시 공익사업이라며 민간투자자를 대신해 직접 사유지 142만 3000㎡(주민주거 297명)까지 매수해 주는 등 적극 지원했다.

그러나, 민간투자자는 지난해 9월 까지 1100억원을 들여 골프장만 완공

한 뒤 "테마파크 등을 지을 여건이 안 된다. 골프장만 우선 개장하겠다"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법원은 골프장을 우선 개장하는 대신 경관녹지와 유원지 부지를 시에 기부하고, 골프장 수익금 일부도 환원하는 등의 강제결정 조정을 제시했으며, 광주 시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를 놓고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돈 안 되는' 테마파크 개발사업만 시에서 떠안게 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광주시도 이 같은 부정적인 시민여론을 의식한 듯 공익성과 광주 발전, 시 재정부담 최소화 등 3대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시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겠다고는 내의 수정 계획안을 내놓았지만, 1년이 넘도록 지체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모 대기업에서 '명품 아웃렛 매장' 입주를 조건으로 공동 개발안을 제시했으나, 시에서 일부 상인 반발 등을 우려해 거절한 것으로 알

명품쌀은 역시 전남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12개 중 6개...역대 최다 선정



녹차미인쌀



달마지쌀



대슬맑은술



아르미쌀



수호천사건강미



황토랑

미세먼지가 적고 일조량이 풍부한 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소비자단체의 전국 명품 브랜드쌀 평가에서 역대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1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 '2013년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12개 브랜드 가운데 전남산이 6개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선정 브랜드의 질만을 차지한 것은 10년 이상 출품한 이 대회에서 처음이다. 지난 2003년부터 선정된 전남산 브랜드 수는 매년 3~5개로 모두 48개에 달하며 연평균 4

개가 넘는다.

올해 선정된 브랜드는 녹차미인쌀(보성), 달마지쌀(영암), 대슬맑은술(담양), 아르미쌀(장흥), 수호천사건강미(고흥), 황토랑(무안)이다.

전남은 9개 브랜드

를 출품했으며, 전국에서 추천된 43개 브랜드와 경합을 벌였다.

이 평가는 쌀 품질 고급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10여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쌀 평가 부문에서는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

전국 1870여개 쌀 브랜드 가운데 시·도 추천을 받은 쌀을 대상으로 3차례의 품질 평가, 소비자, 전문가 패널들의 식미(食味) 평가, 서류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선정한다.

선정된 쌀은 농림식품부와 소비자단체 등의 홍보, 소비촉진 등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파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 서순수 식품유통과장은 "이번 성과는 농업인과 행정기관,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힘을 모아 고품질 쌀 생산정책을 추진한 결과"라며 "쌀 주산지와 친환경 농업의 메카라는 명성에 걸맞게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쌀로서 입지를 확고하게 굳혔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암 진단·치료 '박테리오텍' 세계 첫 개발

〈박테리아 나노로봇〉

전남대 박종오 교수 연구팀이 암의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박테리아를 이용한 의료용 나노로봇인 '박테리오텍(Bacteriobot)'을 세계 최초로 개발, 공식 발표했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남대 박종오 교수가 이끄는 박테리오텍 융합 연구단은 생물인 박테리아와 무생물인 약물을 결합한 나노로봇을 개발해 고형암(대장암·유방암·위암·간암 등 고형장기에 발생하는 암)에

대한 치료법을 제시하고, 동물실험으로 타당성을 입증했다.

박테리오텍에 대한 논문은 과학전문지 'Nature' 자매지인 'Scientific Reports' 온라인 12월 최신판에 '박테리아 기반 마이크로로봇을 이용한 암 진단·치료법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박테리오텍이란 박테리아의 인식·운동·치료 성능과 약물 전달체의 치료 성능을 결합한 신개념 능동형 의

료용 나노로봇을 말한다. 특히 세계의 유수 연구들이 대부분 나노로봇이 단편적인 운동에 머문 정도의 연구에 그친 반면 박종오 팀은 박테리오텍이 특정질환을 찾아가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박테리오텍은 크기가 직경 3μm(마이크로미터)이며, 크게 생물체인 박테리아와 약물들이 있는 마이크로구조체 등 두 부분으로 이뤄졌다.

박테리아는 유전자 조작으로 독성이 제거됐으며, 편모를 움직여 조직이나 혈액 속을 유행한다. 이 박테리

전남대 박종오 교수팀
동물실험 타당성 입증

아들은 항암제 등 특정 약물이 들어 있는 마이크로구조체를 밀고 암이 있는 곳을 찾아가도록 설계됐다. 박테리오텍이 암에 도착하면 마이크로구조체가 터지면서 암 표면에 항암제가 뿌려진다. 박테리오텍의 이동 속도는 평균 초속 5μm가량이다.

연구팀은 고형암에 걸린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박테리오텍의 암 저항성과 암 조직 내 표적화(타깃팅) 여부를 세계 최초로 밝혔다. 박테리오텍을 활용한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의료용 마이크로·나노로봇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원천기술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발한 기능성 박테리아균주, 능동형 약물전달체, 의료용 마이크로로봇 개발 및 제어 등 의료용 마이크로·나노로봇 기술은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국제 PCT 출원,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국제 특허 출원을 마친 상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2013 국내·국제 10대 뉴스, 뜬 별 진 별 ▶8·9면

The New S-Class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New S-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43-15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S 350 BlueTEC 2,987cc, 2,09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9km/ℓ(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6.9km/ℓ), 3등급, 복합CO ₂ 배출량 155g/km	• S 350 BlueTEC 4, 2,987cc, 2,180kg, 자동7단, 복합연비 13.0km/ℓ(도시연비 10.9km/ℓ, 고속도로연비 16.8km/ℓ), 3등급, 복합CO ₂ 배출량 154g/km	• S 500 L 4,663cc, 2,170kg, 자동7단, 복합연비 8.0km/ℓ(도시연비 7.2km/ℓ, 고속도로연비 10.9km/ℓ), 5등급, 복합CO ₂ 배출량 212g/km	• S 500 4MATIC L 4,663cc, 2,255kg, 자동7단, 복합연비 8.0km/ℓ(도시연비 6.6km/ℓ, 고속도로연비 10.5km/ℓ), 5등급, 복합CO ₂ 배출량 226g/km	• S 63 AMG 4MATIC L 5,461cc, 2,215kg, AMG SPEEDSHIFT 7단 멀티클러치, 복합연비 7.3km/ℓ(도시연비 6.2km/ℓ, 고속도로연비 9.4km/ℓ), 5등급, 복합CO ₂ 배출량 246g/km
---	--	---	--	---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